던킨도너츠, 글레이즈드 6개 담은 도넛팩 3900원에 판매

던킨도너츠가 17일까지 '승리의 V도넛 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던킨 글레이즈드 6개로 이뤄진 도넛 팩을 3900원에 판매하는 행사다. 1인당 최대 4팩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한정수량 판매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행사 참여 시 일부 행사, 타 쿠폰 등의 중복 적용 또는 해피포인트 적립은 불가능하다.

"e스포츠 '아마 1인자'는 나!"

대통령배 KeG 결선 13일 개막

9년 연속 정부참여 유일 아마대회
지역선발전서 올라온 150명 열전
장애인 부문 '모두의 마블' 진행도

아마추어 e스포츠 유망주 발굴과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제8회 2016 대통령배 KeG' 결선이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상암동 서울e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지난해 대회 개회식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선수단. 사진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아마추어 e스포츠 최강자를 가리자!

제8회 2016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이하 2016 대통령배 KeG)의 전국 결선이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상암동 서울e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대통령배 KeG는 아마추어 e스포츠 유망주 발굴과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2007년 시작된 최초의 전국단위 정식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다. 지난 2009년 대통령배로 승격됐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9년 연속 정부참여 전국단위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는 KeG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 16개 시도에서 150명 출전

2016 대통령배 KeG는 지난 7월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150명의 지역대표 선발을 완료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전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16팀, '카트라이더' 32명, '하스스톤' 32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자웅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는 소외계층 e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시범 부문을 신설해 '모두의 마블' 2개 부문(지체장애·발달장애) 대회를 진행한다.

결선에는 총 256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종목별로 리그 오브 레전드 1000만원, 카트라이더 600만원, 하스스톤 600만원, 모두의 마블 360만원이다. 정식 종목 우승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대통령상을 받게 된다.

13일엔 개회식과 함께 4개 종목 16강까지 진행된다. 14일엔 전 종목 4강까지, 15일엔 전 종목 결승 및 3·4위전이 열린다. 주관 방송사인 OGN은 3일간 개·폐회식 및 각 종목별 주요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 스포츠, 다음 카카오 TV팟, 트위치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무료로 현장관람도 가능하다.

● 현장 이벤트 풍성

현장엔 아마추어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13일 개회식에는 걸그룹 오마이걸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팀 사인회도 진행된다. 그 밖에 방송시청 인증과 미니게임, 캐리커쳐 등 각종 이벤트와 함께 디엑스레이서 게이밍 의자와 기계식 키보드, 마우스 번지, 프로 선수 사인 마우스패드 등 경품도 준비돼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대한체육회 준가맹 승인을 기점으로 e스포츠를 학원 스포츠로 조성하기 위한 아마추어 에코시스템 정착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KeG를 지속 개최할 방침이다. 또 지역 예선을 지역 PC방과 연계 개최해 향후 PC방을 e스포츠 기초생활체육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회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의미있는 대회를 치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SKT '갤럭시노트7' 차별화 혜택…"월 9900원 내면 기기변경때 잔여할부금 면제"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7' 고객을 위한 차별화 혜택 프로그램인 'T갤럭시 클럽'을 19일 출시한다. 월 9900원을 내면 가입 1년 후 사용 중인 폰을 반납하고 삼성전자 최신 기종으로 기기변경시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준다. 또 분실·파손 보상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메이트북'을 선보인 우보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한국 및 일본 지역 총괄(왼쪽)과 신세계아이앤씨 밸류서비스사업부 고학봉 상무. 사진제공 | 화웨이코리아

"메이트북 한국시장 출시" 화웨이, 국내 상륙 본격화

중국의 화웨이가 국내 유통기업과 손잡고 한국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화웨이는 1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이트북'을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메이트북은 스마트폰의 이동성과 노트북의 생산성을 결합한 화웨이 최초 투인원PC. 윈도우10 운영체제와 인텔의 코어 M 시리즈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그 외에 커버 형태의 키보드, 스타일러스 펜인 메이트펜, HDMI와 유선랜 연결단자 등이 모두 연결 가능한 메이트독 등의 구성품도 갖추고 있다. 가격은 M3모델이 88만9000원, M5모델이 129만9000원이다. 키보드는 12만9000원, 메이트펜은 7만9000원, 메이트독은 9만9000원이다.

이날 공개된 신제품과 함께 눈길을 끈 점은 메이트북 등의 한국 총판이 신세계아이앤씨라는 점이다. 화웨이는 그동안 통신장비 판매 등 기업간거래(B2B)를 하거나, 일부 스마트폰 제품만을 국내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어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김명근 기자

금융

"고수익에 속았다"…유사수신 범죄 64% 껑충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

▮상반기 금융사기 현황

가상화폐 등 새 금융기법으로 접근
협동·영농조합 가장한 사기도 판쳐
대포통장 사기는 20대 男 가장 많아

살기가 빡빡해지면 늘어나는 것은 사기다. 갈수록 금융관련 범죄가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진다. 저금리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돈을 노린 사기가 많아졌다. 여기에 취업을 못하고 학자금 대출로 절박하게 몰린 청년들이 대포통장을 매개로 수렁에 빠지고 있다.

● 상반기 유사수신 범죄 집중 분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건수는 총 298건. 지난해 같은 기간(211건)과 비교해 3.5배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69건을 수사의뢰했다. 지난해는 25건이었다. 64.1%나 범죄가 늘어났다.

저금리·고령화·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유사수신의 달콤한 말은 매력적인 미끼다. 최근에는 잘 모르는 새 금융기법의 용어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한다.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코인) 등이 사기의 소재로 등장했다.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은 40%로 단골메뉴였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많았다.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이종통화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내는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어려운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속였다.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해 농작물 재배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인터넷에 크우드펀딩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25만원을 기부하고 2명의 기부자를 추천해 7단계까지 진행하면 2개월만에 최대 35억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자금을 모은 사례도 있다. 가상화폐 코인에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고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해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한 사례도 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보면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당한 사람은 많다. 시중금리를 생각했을 때 터무니없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곳은 대부분 사기다.

● 대포통장은 젊은이를 노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가운데 남성 65.6%(8476명), 여성 34.3%(4437명) 비율이었다. 이 가운데 20대 26.9%(3471명), 40대 23.1%(2982명), 30대 22.9%(2963명), 50대 17.2%(2218명) 순이었다. 20~50대의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였다.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가 다른 계층에 비해 대포통장에 취약한 것은 최근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준 경우가 36.4%였다. '급전대출 알선'이라는 전단지에 결코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간단 업무,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일을 지하철이나 길에 붙여 사람을 모집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가족 친척에게 준다. 결코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절박하지만 그래서 상식선에서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 명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금융정보 한눈에…'파인' 클릭하세요

금감원, 정보사이트 내달 오픈
각종 상품부터 개인 거래 조회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둔 인터넷 사이트가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http://fine.fss.or.kr)을 개설한다. 파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소비자 정보' 코너를 비롯해 각 협회와 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모았다. 금융상품과 금융거래,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관련 팁은 물론 금융피해 예방구제, 서민중소기업지원, 금융회사, 기업정보, 금융통계, 금융교육 등을 다룬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금융상품의 금리, 수수료, 가입조건 등의 비교 및 검색도 가능하다.

개인의 금융거래내역, 휴면계좌 내역, 카드 포인트 잔액 등도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 번에' 등 편리한 금융정보도 200가지 선정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다. 9월 사이트 오픈과 동시에 매주 1~3개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금융꿀팁 200선' 코너에 올라온다. 노후설계에 필요한 진단과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연금어드바이저'도 내년에는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 동의를 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종건 기자

원·달러 환율 1100원선도 와르르 원·달러 환율 1100원 선이 무너졌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0.70원 내린 1095.40원을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접속부터 신고 완료까지 한번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피 간편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ic.or.kr)가 간편해졌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고 완료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받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치한 기관이다. 지난해 5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갔다.

삼성·한화·교보생명, 소비자불만 48%나 차지

유형별로 판매 민원 가장 많아

금융소비자연맹이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민원현황을 분석해 10일 발표했다. 가장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보험사는 삼성생명이었다. 업계 '빅3'삼성·한화·교보생명의 민원이 48.1%를 차지했다. 상반기 민원은 총 1만5255건.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3416건으로 22.4%였다. 한화생명 2160건(14.2%), 교보생명 1759건(11.5%) 등의 순서였다. 전년 동기대비 가장 많은 민원 감소율을 보인 생명보험사는 동양생명으로 60.5% 줄었다. KB생명(-55.8%), DGB생명(-51.6%) 등도 민원이 크게 줄었다.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민원이 66.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보험금 민원의 17.2%였다. 판매민원은 1년 전 70.5%에서 4.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보험금 민원은 14.9%에서 늘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이 53.9%로 가장 많았으나 생명보험사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판매관련민원이 66.4%로 최다였다. 생명보험업계의 민원 평균은 17.2%였다. 삼성생명은 전년과 비슷한 57.9%였고 한화생명은 59%, 교보생명은 54.3%였다. 보유계약 건수와 대비한 민원 발생율은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KDB생명 순으로 높았다. 라이나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은 민원 발생율이 낮았다. 김종건 기자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